

5조6199억원 규모 신규 발주

- 국가 기간교통망 확충 위해 국책사업 차질 없이 수행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국가 기간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2014년 5조6199억원 규모의 철도건설사업을 신규로 발주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해안권 지역개발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동해선 포항~삼척간 철도건설을 비롯하여 이천~충주 철도건설,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공사 등이다.

계약제 관계자는 "2013년 4/4분기 이후의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발주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는 3조 9791억원(55.2%)을 조기 집행하여 건설경기와 내수 진작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발주사업 현황

발주사업명	사업비(억원)	발주시기
수인선 제2공구 노반 신설공사	3,000	2월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1,200	3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노반 건설공사 (2개 공구)	2,297	6월
동해선 포항~삼척간 노반 건설공사 (12개 공구)	17,657	7월
장항선 개량2단계 노반 건설공사 (2개공구)	3,244	7월
이천~충주 철도건설 노반 건설공사 (5개공구)	7,222	9월

철도시설 개량에 3050억원 투자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올 한해 철도시설물 성능향상과 철도변 생활환경 개선, 안전과 편의시설 확충, 재해예방 등을 위한 철도시설개량에 30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내용은 철도시설(노반, 궤도, 전철 등)의 성능향상 1614억원, 철도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90억원, 지진으로부터 교량과 터널의 안전을 위한 내진 성능보강 392억원,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크린도어, 승강설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485억원, 산사태 및 자연재해 등 예방에 469억원 투자이다.

<2014년 철도시설개량 투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성능향상	방음벽	안전시설	재해예방
합 계	3,050	1,614	90	877	469
일반철도	2,600	1,389	90	652	469
고속철도	450	225	-	225	-

본부는 앞으로도 철도시설물 성능향상과 이용객 편의·안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철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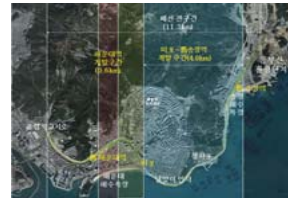
동해남부선 철도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시행

- 2월 5일 본사에서 사업 설명회 개최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지난해 12월 폐선된 동해남부선 뽕해운대역 및 미포~홍송정역(4.8km) 구간 철도시설부지를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해 민간제안 공모를 시행하고, 2월 5일 오후 2시에 대전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제안 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뽕해운대역 및 미포~홍송정역(4.8km) 구간은 동해남부선 철도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단과 부산시간 철도부지 활용 협약을 체결한 부지로 ▲뽕해운대역은 해운대 관광특구 등 주변입지 등을 감안한 4개질 전천후 관광시설로, ▲미포~홍송정역(4.8km) 구간은 해안 절경을 활용한 해양관광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제안 공모로 철도시설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철도와 연계한 안정적 개발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철도자산을 활용한 수익도 발생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철도구간 옥곡3터널 관통

- 남해안 통합생활권 구축 기반 마련 -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기존 경전선을 복선철도로 개량하는 진주~광양 복선화사업 구간 중 가장 긴 터널인 옥곡3터널(L=6412m)을 2월 5일 성공적으로 관통했다.

옥곡3터널은 전남 광안시 원월리 및 용강리 일원의 백운산 지류구간을 지하 7~269m 통과하는 터널로, 전체 구간을 NATM 공법으로 굴착하였으며, 작업하기 어려운 터널상부에서 원지반까지의 두께가 20m이하인 저토피 구간과 남해고속도로 하부터널구간은 지반보강을 위한 그라우팅 작업과 터널 내부보강으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관통되었다.

2009년 11월 터널공사를 착공한 후 현재까지 사업비 415억원, 인연인 2만6122명, 덤프 트럭 외 장비 3만2073대 등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었고, 굴착된 토사량만 56만2772m³로 상암동의 월드컵축구장 넓이(5만18539m²)를 약 9.6m 높이면 채울 수 있다.

본부 관계자는 "경전선 진주~광양복선화 사업은 현재 60.9% 공정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궤도, 전력, 신호, 통신 등 후속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 말까지 완공·개통 할 계획으로 남해안권 통합생활권 구축 및 영·호남 교류축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옥곡3터널 전경

충청본부, 두마초교 철도 소음 민원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관계기관 입장 조율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1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계룡시 두마면 두마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2353명이 제기한 철도 소음 관련 민원을 원만히 해결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두마초등학교 인근으로 호남선 철도가 지나고 있어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며, 향후 철도 차량 증가로 학습권 침해 등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과 계룡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책임소재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자 마을주민 및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23일 두마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노·분부장, 계룡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에 대해 합의회의를 개최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충청본부 박선규 기자>



현혈로 건강 지키며 나눔 실천!

- 최근 6년간 임직원 2200여 명 헌혈 참여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과 함께 1월 27일 본사에서 헌혈 희망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한 '2014 동절기 사랑 나눔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공단은 2004년 출범 이후 매년 본사 및 5개 지역본부에서 '사랑 나눔 헌혈 기간'을 연 2회 지정하고 헌혈 임직원에게 사회공헌 마일리지 부여하는 등 헌혈 참여를 독려한 결과 2008년 이후 임직원 2251명이 헌혈에 참여, 1500여 점의 헌혈증을 기증, 기증받은 헌혈증은 투석이 필요한 동료들에게 사용되었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로 어려운 이웃과 체온을 나누고, 나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수도권본부, 안전결의대회 및 안전기원제 시행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1월 17일과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각 사업별 현장에서 2014년 재해를 0.075%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별 '안전결의대회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번에 시행한 '안전결의대회 및 안전기원제'는 본부가 지난해 재해를 목표를 초과한 데 이어, 올해도 재해를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안전결의로 낭독, 안전 교육, 안전기원제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앞으로도 본부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이다.

<수도권본부 임병일 기자>



"청렴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반부패 청렴 캠페인 시행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7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을 시행했다.

본부 직원 20여 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0여 명은 이날 '청렴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 아래 윤리실천 문안 어깨띠를 착용하고, 양 기관 직원들의 청렴실천 의지가 담긴 청렴 캠페인 티슈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청렴사회 구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양 기관은 2010년 상호 반부패 청렴실천 협약을 맺은 이래 매년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 및 공기업 사회적 책임완수'를 목표로 공동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본부는 2014년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캠페인 직후 직원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하는 다짐대회를 가졌다.

